# 김춘진·박민수, 국회 의정활동 우수

## 법률소비자연맹 집계 결과… 김 의원 6위·박 의원 17위로 상위권

김춘진 의원

박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과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이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상위 의원 20명의 성적권에 포함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법안 발의 건수 및 통과법안 수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상위 국회의원과 하위 국회의원을 20명씩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5대 국회이후 18년째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시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왔다.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국감현장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해 온 국회의정종합모니터 전문단체다.

이번 선정에서 김춘진 의원은 89.31(100점 만점)으로 6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상위 20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우수의원 선정 횟수가 전무했다. 하지만 통과법안대표발의건수 35개, 통과법안공동발의건수 423개, 본회의재석률 92.45%, 상임위출석률 97.39%, 법안표결참여율 91.43%, 상임위소위출석율(2~4차년도)66.67% 등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박민수 의원은 85.20(100점 만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국감우수의원 3회, 통과법안대표발의건수 30개, 통과법안공동발의건수 431개, 본회의재석률 65.83%, 상임위출석률 93.10%, 법안표결참여율 73.75%, 상임위소위출석율(2~4차년도)80.65%로 집계됐다.

또한 김춘진 의원과 박민수 의원은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종합헌정대상에도 포함돼 우수 의정활동 영예를 안았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비성과자 의원에 대한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의원들이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평가 작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의정활동 평가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황계룡 이사(전북행정개혁실천연합)는 "단순한 수치 조사만으로 우수 의원으로 평가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출석과 법안 발의 건수 등 단순한 의정활동에서도 하위권을 받은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 우수의원들의 성실성면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률소비자연맹은 김관영, 김성주, 김춘진, 전정희 의원을 제19대 국회 대한민국 종합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도 선정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도내 출연기관 홍보, 전문가들을 활용하라"

## 강용구 도의원, 14곳 중 5곳만 제대로 된 홍보부서 운영

강용구 도의원(남원2·사진)는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내 출연기관의 홍보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주장했다.

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홍보가 알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미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영입이 요구된다는 것.

강 의원은 "공공기관 홍보는 지역사회에 조직 운용의 목적과 내용, 프로그램 등을 잘 알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조직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친밀하게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기관 역시 이미 홍보 전문가를 통해 대 국민 소통을 활성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기관운영 정책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우거나 주요 이슈와 관련된 미디어 보도 내용을 분석 대응해 국민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에 전북 14개 출연기관 중 제대로 홍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담직원도 전문적인 홍보 담당이 아닌 일반 직원이 업무 분장 일부를 맡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홍보 전문가가 없는 경우 무엇을 알리려는지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홍보부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설익은 홍보는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고 도정과 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수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홍보전문가 채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홍보와 공보전담부서를 두는게 기관 운영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홍보가 기관 자체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는 전향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허남주 의원

이현숙 의원

최은희 의원

강병진 의원

### 허남주 의원 5분발언

## "도지사 비서실 책임 따라야"

### 강병진 의원 5분 발언

## "가축방역관 기준치의 절반"

전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허남주(새누리당 비례), 이현숙(무소속 비례), 최은희(더불어민주당 비례), 강병진(더불어민주당 김제2)의원은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허남주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은 권한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지사 비서실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됐고 지사 당선과 함께 임용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이들이 직급은 높고 예산 사용도 적지 않은데다 인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비서실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거를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은 "익산소재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유전자 벼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아무리 시험재배지만 유전자조작 벼의 꽃가루가 바람이나 벌, 새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날아가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희 의원은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은 도내 유일 한정면허 사업자이다"며 "20년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독점적인 여객 운송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고 도민들에게 교통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병진 의원은 "도내 각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이 농식품부 기준 34.5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6명에 불과하다"면서 "최소한의 방역대책 정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저 총선 출마합니다

### 정운천 예비후보 "군산, 사드 배치 후보지로 부적합"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 완산을·사진)는 16일 '군산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고, 그 후보지로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후보는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되는 군산지역 새만금사업은 국가 최대사업으로 수조원이 투자되고 내부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산업단지는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됐고, 한중산업단지 조성 등이 무산되면 중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하는 등 자칫 외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후보는 "당과 청와대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사드 군산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김광수 예비후보, 후보자 등록 마쳐 총선 채비 마무리

국민의당 김광수 예비후보(전주 완산갑·사진)는 16일 서울 중앙당사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총선 채비를 마무리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숱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앙무대로 진출해 보다 큰 정치에 아낌없이 쏟아 붓겠다"며 "지난 14년 간 지방의원으로서 소망해왔던 새로운 정치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의제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진력하겠다"며 "지방의원 출신들이 이제 전북정치의 새장을 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꽃밭정이 사거리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신광영 기자

### 성은순 예비후보 "행복한 노후생활 위한 복지에 온 힘"

더불어민주당 성은순 예비후보(전주 덕진·사진)은 16일 효자동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총회에 참석,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성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어 관내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농사를 지어봐야 농민의 심정을 알고, 장사를 해봐야 자영업자의 눈물을 알 수 있다. 전주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늘 겸손한 마음, 배운다는 낮은 자세로 전주의 재도약을 위해 여성이란 벽을 뛰어넘고 반드시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는 "생활정치는 공존공생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이웃과 동료들이 힘을 합쳐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생활정치의 결실이라고 판단한다"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신광영 기자

### 박종길 예비후보 "쌍릉공원 일대 역사공원 조성할 것"

새누리당 박종길 익산을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사진)는 쌍릉공원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익산시를 관광벨트를 형성시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박 후보는 "쌍릉공원 옆에는 대왕릉과 익산 토성 등 역사성을 지닌 다양한 문화가 산재되어 있어 테마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편리한 교통망과 인근에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 익산 토성 등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데다 역사성 있는 체험코스로 최적의 장소로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쌍릉공원이 테마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인근에 찾아볼 수 없는 최적의 가족 나들이 코스가 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비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국가예산확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정부, 개성공단 피해 업체별 실제 규모 추산 보상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사진)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피해를 입은 전북도내 중소기업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업체별 실제 피해규모를 면밀히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당시 대한상의 조사결과 업체 평균 피해액은 20억원이 넘었던데 반해 정부 무상지원은 업체당 500만원~2,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내민 대책이 다시 '빚'을 내라는 건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꼴"이라면서 "대통령이 4.13 총선을 앞둔 북풍전략이 아니길 바라면서 피해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김윤덕 의원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사진)은 16일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할 때 전북지역은 기존에서 1석 줄어든 10석으로 윤곽이 잡혀졌다"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선거법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역민들을 만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최대 국가예산인 6조원을 최초로 돌파했고 전국 최초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역민들과 전북정치권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함께 이룬 남다른 성과였다"며 "현장중심 소통정치를 약속드리고 임기내 100차례 진행을 약속했던 당 나귀투어도 목표치를 뛰어넘어 계속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중간평가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야권분열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여전히 죄송스런 마음 뿐"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전북민심을 바탕으로, 더 많은 예산 더 나은 정책 더 강한 정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이상현·한완수 도의원, 더민주 강동원 지지 선언

전북도의회 이상현(남원1) 부의장과, 한완수(임실) 의원은 16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동원(남원순창)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강동원 국회의원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4.13 총선을 통해 경제민주화 헛구호만 외치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버린 새누리당의 견제를 위해 강동원 후보를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의 개표조작과 악질적인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 교체와 새누리당 견제를 위한 중심세력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될 것이며, 강한 야당 후보인 강동원 후보가 그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신광영기자

### 더민주 조성원 예비후보, 군산 출마 공식화

조성원(40·사진) 예비후보가 제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산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후보는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다"면서 "군산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조 후보는 "서민들을 조롱하듯 비정규직만 늘리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사회적 약자에겐 온갖 세금을 걷어가고 있다"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자기 자존감을 지켜야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 받거나 천대받아서는 안 되며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정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군산을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김정호 예비후보, 5대 프로젝트 발표

김정호 국민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국민회의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사진)가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6일 김 예비후보는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번째로 노동자, 직장인, 자영업자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제안했다. '노동자,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은 총 네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을 살펴보면 '저성과자 해고 방침 강행 저지', '비정규직 차별해소',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 '자영업자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